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영유아 교원 양성학과 운영 개선 방향 모색

일 시 ▶ 2024. 10. 17(목) 10:00-12:00

장 소 ▶ 서울스퀘어 중회의실1

주 최 ▶ 육아정책연구소



본 자료집의 내용은 대외비로, 임의적인 외부 유출에 유의해주시요.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영유아 교원 양성학과 운영 개선 방향 모색

❖ 2024. 10. 17.(목), 10:00 ~ 12:00

❖ 서울스퀘어 중회의실

진행 ▶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일시	세부일정
10:00~10:05	개회 참석자 소개
10:05~10:10	연구 소개 ▶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0:10~10:40	발 표
	주제 1.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 ▶ 김대욱 (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주제 2. 영유아교사 양성 정원 추계 및 관리 방안 ▶ 신나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주제 3. 영유아 교원 양성기관 평가제도 개선안 ▶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0:40~11:40	지정 토론
	주제 1 ▶ 박윤현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이병호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김현주 (대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주제 2 ▶ 박유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주제 3 ▶ 김정화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전홍주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1:40~12:00	종합 토론 ▶ 참석자 전체

연구 소개

- “영유아 교원 양성 학과 운영 개선 방안 연구” 개요 1
▶ 김은설 |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 표

- 주제 1.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 11
▶ 김대욱 | 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주제 2. 영유아교사 양성 정원 추계 및 관리 방안 21
▶ 신나리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주제 3. 영유아 교원 양성기관 평가제도 개선안 33
▶ 강은진 |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지정 토론

- ▶ 박윤현 |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47
- ▶ 이병호 |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50
- ▶ 김현주 | 대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53
- ▶ 박유정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57
- ▶ 김정화 |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59
- ▶ 전홍주 |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63

연구 소개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영유아 교원 양성 학과 운영 개선 방안 연구” 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유보통합과 영유아 “교원”의 양성

그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직원에 속하는 직업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1년제 단기교육기관, 2, 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학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다. 즉 특정 전공 학과의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았고 필요한 교육을 일정 시간 동안 받고 필요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복지 분야 종사자 국가자격 부여 방식이었다. 이에 비해 유아교육 분야의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과 또는 교직이수 유아교육전공 과정을 거치고 유·초·중등학교 교사와 동일선 상의 교육체제 내 교육부 발행 ‘교원’ 자격을 가진 직업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던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부 소속으로 통합되면서 두 가지 직업 모두 이제는 하나의 자격으로 수렴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교육부 자격인 ‘교원’으로 일원화될 것이다.** 또한 영아와 유아 즉,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명칭 또한 재정립 될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영유아교원’이라는 명칭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 영유아교원 자격·양성 개편 방향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보면, 통합 영유아교원 자격·양성 개편의 방향은 영유아정교사이든 영아정교사/유아정교사로 구분하든 간에 통합교원 자격을 마련하는 것이고, **통합교원은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요구, 대면 중심 학과 및 전공제(주·비사범계)로 양성 과정 운영, (가칭)영유아교육과로 개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과의 개편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어려움이 나 운영의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근거에서 확인해내고 유보통합 교사 양성을 위해 가장 적절한 방식의 학과 개편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 학과 개편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양성 규모의 변화와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 등으로 인적 환경이 한층 높아진 통합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 수의 증가가 어느 정도의 수급 문제를 가져올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유보통합 이후 통합자격을 가진 교사의 양성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측면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보아야 할 필요성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유아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어떠한 모습으로 개편되어야 할지에 대해 적절한 모델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필요로 되는 통합교원 양성의 규모를 예측하여 유보통합 이후 2027년부터 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교원의 수급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즉, 양성 학과의 개편 방안에 따라 지역별 필요한 학과 정원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교사 양성 학과를 가진 전국의 각 대학은 2027년부터 해당 학과 신입생 정원을 확정, 예고해야 하므로 연구 결과가 대학 학생 모집 등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 뿐만 아니라 학과 개편의 과정에서 영유아교원 교육을 책임지는 각 대학이 양성 기관으로서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관 평가 방법과 적용 방안 또한 교원 양성에서는 중요하게 요구되는 문제이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는 이와 같은 평가의 측면과 관련 법률의 개정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 현황 및 제도 분석

현행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 제도, 양성 현황, 관련 정책에 대해 개관하고 유보통합에 따른 예상되는 변화, 주요 이슈를 검토한다.

○ 영유아교사 양성학과 개편 관련 의견 분석

유보통합에 따른 양성기관의 개편 안에 대한 관련 단체의 의견, 양성 기관의 개편 관련 의향 및 계획 등 면담조사,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 양성 학과 개편 방안

역량있는 영유아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 학과 개편 방안을 개발한다. 여기에는 2, 3년제 전문대의 유아교육 및 교육 관련 학과의 수업 연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4년제를 포함한 유아교육과, 보육과, 아동학과 등 현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관련 학과를 개편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 등 주제를 비롯해서, 영유아 교사 양성 학과 명칭의 개발, 대면 학과 중심 양성 방안 등을 연구할 것이다.

○ 영유아교사 양성의 정원 추계

둘째, 학과 개편에 따른 영유아교사 양성의 정원을 추계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과 개편의 결과 신규 학과 개설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 학과의 폐쇄 및 통합, 학과 방침에 따른 정원의 조정 등 여러 측면에서 교사 자격자 배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한편으로는 유보통합을 통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변화로 인한 교사 채용 수요 또한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통계적 예측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시도별로 필요로 되는 영유아 교사 수, 양성방식의 변화 과정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정원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 교사 양성 정원을 추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양성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영유아교사 양성 기관 역량진단 평가 방안: 양성기관 승인 기준 마련

셋째, 유보통합에 따라 개편되는 학과 및 대학에 대해 교사 양성 기관으로서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역량 진단을 위한 평가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의 양성 기관으로서 평가를 받아오던 대학도 있겠지만 신규로 대상이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평가 방식의 적용 가능성, 신규 평가 방식의 개발, 양성 기관으로서 승인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방안 제시

넷째, 유보통합에 따른 양성 과정 학과 개편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교사 양성과 관련한 기존 법령을 검토하고 유보통합 교사 양성과 학과 개편에 필요한 개정 사항을 도출하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 방법이다.

양성교육기관의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개편 모델 제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며, 기존 유보 교사 양성 관련 통계, 영유아 인구 추계 통계,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교사 대 아동 수 조정 방식에 따른 교사 수요 예측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 양성 교원 자격자 수를 추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 자료 검토,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연구 결과 도출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둘째, 양성기관 현황 및 의견 조사이다.

영유아 교원 양성 관련학과 교수 등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변화에 대한 대학 현장의 향후의 대응 계획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현재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전국의 대학(4년제, 전문대) 총 257개교를 대상으로 유보통합에 따라서 교사 양성 학과를 개편할 계획이 있는지, 정원의 조정을 할 예정인지, 자유전공은 적용할 계획인지 등을 조사하였다(조사 중).

〈표 I-3-1〉 양성기관 대상 현황 및 의견 조사 내용

영역	세부 영역	문항 내용
일반 사항	응답자 정보	대학 유형, 지역, 설립 유형, 응답자 정보
양성 현황	현재 양성 현황	양성 자격, 학과(전공), 정원
	교직 과목	담당 교수
유보통합에 따른 계획	4년제 학위로 상향	4년제 학위 과정으로 전환
	학과 개편	영유아교육과로 개편 여부
	정원	정원의 증원 또는 감원
	학과 명칭	“영유아교육과”의 적절성
	자유전공제	운영에 대한 의견
	전반적 의견	양성 과정의 개편에 대한 의견

셋째, 교사 양성기관 대표 협의회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지역, 학교 유형, 다양한 학과를 고려하여 타당한 양성 기관 개편 방안 제시를 하기 위해, 4년제 및 전문대 유치원 교사 양성 기관 대표 단체, 4년제 및 전문대 보육교사 양성 기관 대표 단체 또는 기관 대표¹⁾를 대상으로 유보통합에 따른 양성 기관 개편의 방식과 대응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다양한 유형의 대표 단체를 통해 각 집단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한 쟁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I-3-2〉 양성기관 대표 단체 간담회

차수	일정	참석 전문가	주요 내용
1	2024. 6. 17	4년제/전문대 유치원교사 양성기관 협의회 4년제/전문대 보육교사 양성기관 협의회 대표 각 2인씩 총 8인 참석	교원 양성 학과 개편 방안 관련 각 협의회 의견 개진
2	2024. 9. 12	보육교사 양성 사이버대학 연합회 대표 간담회	유보통합과 교사양성 제도에서 사이버대의 역할
3	2024. 9. 25	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대표 간담회	유보통합과 교사양성 제도에서 학점은행평생교육 기관의 역할

1)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전문대학을 대표하는 공식적 단체가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중 배출 교사자격자 수가 최대인 기관 중 참석이 가능한 학교를 섭외하여 협의회에 참석토록 하였다.

넷째,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 그리고 유보통합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 선행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 진행과정 및 방법, 양성 규모 산출, 기관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으로 수립하여 현장에 적용, 실행할 교육부 영유아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연구 진행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표 I-3-3〉 자문회의 개최 일정 및 내용

차수	일정	참석 전문가	주요 내용
1	2024. 7. 23.	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수, 4년제 보육학과 교수, 4년제 아동학과 교수, 교육대학원 교수	양성기관 평가 방식 및 지표 개편 방안
2	2024. 9. 6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양성평가 담당 전문가	양성기관 평가 제도 및 개선에 관한 의견
3	2024. 10. 25(예정)	교원양성기관 교직과정 담당 교수	교직과정 운영 개선 방안관련 의견

〈표 I-3-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차수	일정	참석자	주요 내용
1	2024. 5. 9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원정책과	통합영유아교원 양성 관련 정부 계획 청취
2	2024. 5. 28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원정책과	연구 계획 발표, 진행 관련 정부 의견 수렴
3	2024. 7. 12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교원정책과 담당자 4인/ 전문가 7인 (교원양성 관련 대학 교수)	연구진행 과정 공유 및 의견 수렴
4	2024. 8. 1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교원정책과 담당자 3인/ 전문가 15인 (교원양성 관련 대학 교수)주)	연구진행 과정 공유 및 의견 수렴
5	2024. 8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교원정책과 담당자 3인/	연구진행 과정 공유 및 의견 수렴
6	2024. 9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교원정책과 담당자 3인/ 전문가 7인	연구진행 과정 공유 및 의견 수렴
7	2024.10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교원정책과 담당자 3인/ 전문가 3인	연구진행 과정 공유 및 의견 수렴

다섯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연구방법에 따른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결과를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각계의 일반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자 한다.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 교원, 학계 전문가, 교원 양성 대학 운영자, 시도 교육청 관계자 등 관련자들의 공개적 토론을 통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연구의 외부 공동연구진으로 활용하여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대학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 1인씩을 전문가 공동연구진으로 포함하여, 각 영역의 대학 집단 의견을 대표적으로 연구에서 참조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갖고자 하며, 양성기관 개편 및 자격자 양성 규모 추계에 전문적 역량을 반영함으로써 연구 보고서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4. 연구진

- 연구책임자: 김은설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원내) 강은진 선임연구위원, 김근진 연구위원, 윤소정 연구원
(원외) 김대욱 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신나리 충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5. 연구 기간 : 2024. 5. 2 ~ 11. 30

6. 기대효과

- 유보통합 대비 교사 양성 학과 개편을 통한 영유아 교사 핵심역량 강화
- 영유아교사 양성 정원 추계에 근거한 양성교육기관 운영 방향 기준 마련
- 영유아교사 양성과정 역량 진단과 승인에 대비한 교사 양성 대학 지원

발 표

주제 1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

김대욱

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024. 영유아교원 양성과정 개선 토론회 발제원고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김대욱

CONTENTS

- 01 학과 명칭
- 02 수업연한
- 03 무전공(자유전공제) 도입
- 04 학과 개편(안) 및 운영 방식

01 학과 명칭

가. 통합학과 명칭: 영유아교육(학)과

1) 통합학과 명칭

사범대학 소속: 영유아교육과

사범계열 소속: 영유아교육학과

성격: 0~5세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2) 통합학과 통합영유아교사 자격증 부여

영유아교육(학)과는 모든 정원에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을 부여

7주기 교원양성역량진단부터 적정 규모 계속 관리

3) 통합학과 전환 대상

현재 유아교육(학)과와 보육교사 양성학과

가능한 최대한 영유아교육(학)과로 많이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독려

해당 학과 교원의 세부전공이 영유아교육 절반 이상(유아교육전공, 아동학전공 모두 해당) + 전환 희망하는 학과

01 학과 명칭

나. 전공 명칭: 영유아교직이수(아동관련학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의미

1) 영유아교직이수 신설

아동관련학과에 영유아교직이수 신설

아동관련학과를 학부처럼 운영

'아동관련전공' 과 '영유아교직이수' 로 운영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의미

2) 영유아교직이수 통합영유아교사 자격증 부여

영유아교직이수는 일부 정원에 통합영유아교사 자격을 부여

7주기 교원양성역량진단부터 적정 규모 계속 관리

01 학과 명칭

다. 교육대학원 명칭

1) 교육학과 있을 때: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 운영
영유아교육전공 주임교수는 영유아교육(학)과 소속 교원 or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 소속 교원
해당대학에 영유아교육(학)과 있을 때 영유아교육(학)과에서 교육대학원 전공 주임두고 운영
해당대학에 영유아교육(학)과 없을 때 전공 주임교수 최소 1명 확보 필수

2) 교육학과 없을 때: 교육대학원 영유아교육전공

교육대학원 영유아교육전공 운영
해당대학에 영유아교육(학)과 있을 때 영유아교육(학)과에서 교육대학원 전공 주임두고 운영
해당대학에 영유아교육(학)과 없을 때 전공 주임교수 최소 1명 확보 필수

01 학과 명칭

라. 일반대학원 명칭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영유아교육전공 운영
2027년부터 운영, 2026년부터 모집

02 수업연한

가. 현황

1) 4년제 대학의 수업연한: 영유아교육(학)과, 영유아교직이수

영유아교사 양성학과의 수업연한은 모두 4년 이상으로 통일

무전공 2학년 입학생, 특별편입과정 3학년 편입생을 고려하여 4년 안에 졸업할 수 있도록 배려

2) 2~3년제 대학의 수업연한: 영유아교육학과, 아동관련학과

영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 중 영유아교직이수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통일

2~3년제 아동관련학과와 아동관련전공은 기존의 2~3년제 운영, 영유아교직이수는 4년제 운영

3)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

논문과정은 5차 학기, 비논문과정은 6차 학기로 기존 과정과 동일하게 운영

02 수업연한

나. 전문대학 영유아교육학과를 4년제로 상향

1) 2~3년제 대학의 수업연한 4년으로 상향

가) 간호학과 모델 적용

(1) 고등교육법의 전문대 간호학과 모델 적용: 2~3년제 대학의 간호학과 4년제 운영 모델 검토 후 적용

(2)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와 심화전공 운영 사례: 심화전공 운영하여 4년제 가능, 아동관련학과 지원 필요

(3) 전문대 영유아교육학과 교직 과목 운영: 인근 대학 교직과정 학점교류 수강, 교내 간호학과 등 교직과정 공동 운영

2) 2~3년제 유아교육과 및 아동관련학과: 정원 유지, 증원

2~3년제 유아교육과 및 아동관련학과 중 영유아교직이수의 수업연한이 4년 상향됨에 따라 교원 추가 확보 필요

2~3년제에서 4년제로 전환될 때 학과 소속 중 학생수를 줄이지 않고 전환, 증원하는 방향 검토

03 무전공(자유전공제) 도입

가. 현황

대학의 무전공 입학이 확대되고 있고, 현재 사범계열은 무전공 제외.

03 무전공(자유전공제) 도입

나. 통합시 고려되어야 하는 무전공 관련 사안

1) 수도권 대학의 무전공(자유전공제)

가) 수도권 대학의 사범대 및 비사범대 무전공(자유전공제) 운영

(1) 수도권정비계획법 검토: 대학, 교육대학원의 총 정원 내에서 운영

(2) 1학년 전공 입학 학생수를 유지하면서 2학년 무전공 학생 추가 배치

(3) 무전공(자유전공제) 계열 검토: 입학시 무전공 선발 제외, 2학년 추가 배치 가능.

나) 수도권 대학의 영유아교직이수에서 무전공(자유전공제) 운영

(1) 수도권정비계획법 검토: 대학, 교육대학원의 총 정원 내에서 운영

(2) 무전공인원 추가 배치

(3) 무전공(자유전공제) 계열 검토: 대학 자율 계획에 따라 영유아교직이수의 무전공 운영

03 무전공(자유전공제) 도입

나. 통합시 고려되어야 하는 무전공 관련 사안

2) 비수도권 대학의 무전공(자유전공제)

가) 사범대, 비사범대의 무전공(자유전공제)

(1) 사범대 영유아교육과에서 무전공 운영: 지역적 상황 고려

(2) 무전공(자유전공제) 계열 검토: 무전공 계열 제외, 2학년 추가 배치 가능

나) 영유아교직이수에서 무전공(자유전공제) 운영

(1) 영유아교직이수에서 무전공 운영: 학과의 영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 적용 가능 검토

(2) 무전공(자유전공제) 계열 검토: 대학의 자율에 따라 무전공 운영

03 무전공(자유전공제) 도입

나. 통합시 고려되어야 하는 무전공 관련 사안

3) 영유아교사 추계에 따른 증원

가) 특별교원양성과정(현직교사자격전환과정)과 특별편입과정

나) 지역별 수요에 따른 영유아교사 증원

4)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시 우려되는 점

가) 대학 내 학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폐과 및 정원 감원

나) 영유아교육(학)과와 영유아교직이수의 입시경쟁력 부족 현상,
사범대 총정원제에서 영유아교육과 제외 필요

다) 지역수요에 적절한 영유아교사 양성의 필요성

라) 부족한 수도권 영유아교사 양성규모

마) 무전공(자유전공제) 도입

바) 대규모 정원의 영유아교육(학)과 개설

사) 대면과 비대면 혼합방식 영유아교사 양성에 대한 우려

04 학과 개편(안) 및 운영 방식

가. 영유아교육과 사범대 총 정원제 제외

사범대 총 정원제에서 영유아교육과를 제외하여 정원 조정 필요

사범대 영유아교육과의 사범대 안에서 발전방향 모색

나. 1대학 1캠퍼스 1단과대학 통합학과 원칙

동일 대학 안에서 영유아교육(학)과가 같은 캠퍼스와 단과대학에 배치

사범대학이 있으면 반드시 사범대학에, 없으면 같은 단과대학에 배치

사범대 총 정원제 제외하여 통합 학과로 조정, 글로벌 사업 등으로 이후 통합되는 학교와 학과에 이 기준 적용

다. 2개 이상 학과의 영유아교육(학)과 통합

2027년부터 영유아교사 양성하려는 학과 대상으로 2025년 사전승인 실시

대학에 2개 이상 영유아교사 양성 관련 학과가 있으면 통합이 적절

04 학과 개편(안) 및 운영 방식

라. 대규모 영유아교육(학)과 운영

통합 학과는 같은 단과대학,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쓸 수 있도록 개별 대학에 지침 제시할 필요

통합 학과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금 제공이 필요

분반 기준 마련: 25명(6주기 교원양성역량진단 전공 평가 기준), 충분한 수의 교수 증원 필요

특별편입과정 운영 시 분반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 고려

마. 영유아교육(학)과 입학시 무전공 제외, 2학년 무전공 배치 허용

영유아교육(학)과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처럼 사범대학(사범 계열)로 입학시 제외

2학년 무전공 학생 추가 배치 허용, 영유아교사 양성 규모에 따라 조정

영유아교직이수 운영하는 아동관련학과는 개별 대학 자율 의사에 따라 무전공 운영

04 학과 개편(안) 및 운영 방식

바. 특별편입과정 운영

2029년부터 특별편입과정 편입생이 졸업하여 통합 영유아교사로 배출, 2026년부터 특별편입과정 선발

특별편입과정 선발 인원은 교사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 정원의 50% 이내 대학 자율 결정

사. 영유아교직이수 교원자격 수여 비율 증가

1안. 현행대로 10% 이내 유지

2안. 일부 상향시켜 30% 이내 부여

3안. 대폭 상향시켜 50% 이내 부여

아. 교육대학원 증원

재교육과정의 정원을 양성과정 정원으로 이동시키는 방안 검토

수도권정비계획법 검토하면서 증원방식 결정

자. 대면중심 교육 강화

비대면교육 일부 or 전면 실시 양성과정은 대면교육 비율을 대폭 상향

감사합니다

주제 2

영유아교사 양성 정원 추계 및 관리 방안

신나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영유아교사 양성 정원 추계 및 관리 방안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신나리

CONTENTS

1. 분석 방향 및 특성
2. 영유아교사 수요 규모 (2031)
3. 영유아교사 공급 규모 (2031)
4. 영유아교사 수급 예측에 따른 관리방안

분석 방향 및 자료 특성

1 시계열 또는 모델링이 아닌 정책요인 중심의 수요 규모 산정

2 분석 자료의 특성과 정책 변수 활용을 위한 가정

가정

1. 시도 기준의 분석
2.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자료부터 분석
3. 6월 28일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및 8월 20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내용 기초
 - 영아교사와 유아교사 미구분
 - 연장교사, 보조교사 외 기타 교사(누리보조교사, 대체교사 등) 미고려
 - 보육교사교육원 및 원격대학 미고려
4. 일반교사 대상의 수요 추정(장애영유아 대상 교사 등 미고려)
5. 정원총족률, 폐원을 미고려

자료

1. 장래인구추계 중 저위자료 사용
2. 교육통계 중 4월 기준 통계 사용
3. 유치원교사는 일반교사와 기간제교사를 담임교사로, 보육교사는 담임교사 원자료를 사용
4. 공급규모에 해당하는 신입교사 규모는 학과 정원을 사용

영유아교사 수요 규모 (2031)

2031 영유아교사 수요 규모 예측 방법



1. 영유아 인구수 예측치 (2031)

- 장래인구추계(통계청) 저위추계 사용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서울	34,974	32,665	30,766	29,066	27,332	27,065	28,473
부산	10,629	10,561	10,467	10,330	10,140	10,390	11,122
대구	8,394	8,388	8,366	8,299	8,196	8,441	9,082
인천	13,044	12,891	12,773	12,593	12,320	12,514	13,238
광주	6,149	6,110	6,064	5,979	5,862	5,984	6,406
대전	6,507	6,410	6,263	6,044	5,807	5,820	6,061
울산	4,140	4,136	4,140	4,127	4,086	4,189	4,484
세종	3,215	3,106	3,053	3,011	2,966	3,020	3,237
경기	65,550	64,844	63,955	62,612	60,889	61,531	64,867
강원	6,340	6,331	6,241	6,094	5,932	5,990	6,298
충북	7,071	7,000	6,879	6,725	6,546	6,609	6,938
충남	9,746	9,613	9,445	9,243	9,010	9,105	9,625
전북	6,017	5,992	5,940	5,861	5,762	5,890	6,274
전남	6,550	6,546	6,470	6,367	6,247	6,350	6,708
경북	8,994	8,941	8,824	8,661	8,470	8,587	9,088
경남	10,915	10,973	11,003	10,980	10,905	11,235	12,085
제주	3,052	3,046	3,053	3,049	3,031	3,123	3,364
전체	211,287	207,553	203,692	199,041	193,501	195,843	207,349

2. 영유아 취원률 예측치 (2031)

- 2019 이후 취원률 중 영아반은 2023년 수치, 유아반은 가장 높은 취원률을 사용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서울	24.67	86.12	90.25	84.66	81.94	82.75
부산	20.04	85.70	84.82	87.04	88.25	90.02
대구	23.39	91.44	88.77	91.81	92.42	93.61
인천	24.63	87.95	90.63	89.98	91.90	92.89
광주	26.30	94.57	91.91	94.55	95.71	95.76
대전	24.24	90.36	89.91	91.90	94.22	94.26
울산	21.81	88.61	87.44	89.60	90.77	93.21
세종	24.55	89.80	87.45	87.60	87.23	86.91
경기	25.25	86.40	88.55	89.07	89.82	90.19
강원	23.59	82.50	86.86	93.65	93.99	95.27
충북	25.19	91.30	94.75	94.49	94.66	95.87
충남	25.73	88.22	91.79	95.72	96.94	100.00
전북	29.64	85.39	89.73	94.46	94.82	98.02
전남	25.16	83.96	84.72	92.10	94.42	97.85
경북	23.82	84.48	86.89	93.89	95.01	98.70
경남	25.62	85.20	88.08	92.86	94.11	96.96
제주	30.17	91.81	87.42	93.40	92.58	94.63

3. 취원 영유아수 예측치 (2031)

-인구수 대비 예측 취원아수로 산출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서울	16,688	26,497	26,233	23,140	22,176	23,561
부산	4,246	8,970	8,762	8,826	9,170	10,012
대구	3,925	7,650	7,367	7,524	7,801	8,502
인천	6,388	11,234	11,413	11,084	11,501	12,250
광주	3,225	5,735	5,495	5,542	5,728	6,125
대전	3,131	5,650	5,434	5,336	5,484	5,713
울산	1,805	3,668	3,609	3,661	3,803	4,179
세종	1,552	2,742	2,633	2,575	2,634	2,784
경기	32,918	55,256	55,444	54,158	55,266	58,501
강원	2,989	5,149	5,294	5,555	5,630	6,000
충북	3,544	6,281	6,372	6,186	6,256	6,652
충남	4,981	8,333	8,484	8,612	8,782	9,625
전북	3,560	5,072	5,259	5,443	5,585	6,147
전남	3,295	5,432	5,394	5,719	5,964	6,564
경북	4,272	7,455	7,526	7,907	8,158	8,928
경남	5,608	9,374	9,672	10,126	10,573	11,584
제주	1,840	2,803	2,666	2,831	2,891	3,183
전체	103,967	177,301	177,057	174,225	177,402	190,310

4-1. 연령별 필요 영유아교사수 예측치: 담임교사(2031)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교사대야동비율(0세 2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3명, 4세 15명, 5세 18명) 적용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계
서울	8,344	5,299	3,748	1,780	1,386	1,309	21,866
부산	2,123	1,794	1,252	679	573	556	6,977
대구	1,962	1,530	1,052	579	488	472	6,083
인천	3,194	2,247	1,630	853	719	681	9,324
광주	1,612	1,147	785	426	358	340	4,668
대전	1,566	1,130	776	410	343	317	4,542
울산	902	734	516	282	238	232	2,904
세종	776	548	376	198	165	155	2,218
경기	16,459	11,051	7,921	4,166	3,454	3,250	46,301
강원	1,495	1,030	756	427	352	333	4,393
충북	1,772	1,256	910	476	391	370	5,175
충남	2,490	1,667	1,212	662	549	535	7,115
전북	1,780	1,014	751	419	349	342	4,655
전남	1,647	1,086	771	440	373	365	4,682
경북	2,136	1,491	1,075	608	510	496	6,316
경남	2,804	1,875	1,382	779	661	644	8,145
제주	920	561	381	218	181	177	2,438
전체	51,982	35,460	25,294	13,402	11,090	10,574	147,802

4-2. 연령별 필요 영유아교사수 예측치: 학급당 교사(2031)

-담임교사와 동수의 연장교사 수를 더한 값으로, 담임교사수의 2배수에 해당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계
서울	16,688	10,598	7,496	3,560	2,772	2,618	43,732
부산	4,246	3,588	2,504	1,358	1,146	1,112	13,954
대구	3,924	3,060	2,104	1,158	976	944	12,166
인천	6,388	4,494	3,260	1,706	1,438	1,362	18,648
광주	3,224	2,294	1,570	852	716	680	9,336
대전	3,132	2,260	1,552	820	686	634	9,084
울산	1,804	1,468	1,032	564	476	464	5,808
세종	1,552	1,096	752	396	330	310	4,436
경기	32,918	22,102	15,842	8,332	6,908	6,500	92,602
강원	2,990	2,060	1,512	854	704	666	8,786
충북	3,544	2,512	1,820	952	782	740	10,350
충남	4,980	3,334	2,424	1,324	1,098	1,070	14,230
전북	3,560	2,028	1,502	838	698	684	9,310
전남	3,294	2,172	1,542	880	746	730	9,364
경북	4,272	2,982	2,150	1,216	1,020	992	12,632
경남	5,608	3,750	2,764	1,558	1,322	1,288	16,290
제주	1,840	1,122	762	436	362	354	4,876
전체	103,964	70,920	50,588	26,804	22,180	21,148	295,604

5. 통합기관 교사수 예측치 (2031)

-담임교사, 연장교사, 보조교사(시간에 따라 영아반 교사수의 반수 적용), 돌봄교사(지난 4년간 시도별 담임교사수 대비 돌봄시간 담당 교사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 수의 총합으로, 돌봄교사에는 24사시간교사, 야간연장교사, 및 연장보육반 전담교사수를 이용

구분	학급당 교사			보조교사	돌봄교사	계
	담임교사	연장교사	소계			
서울	21,866	21,866	43,732	8,695	2,781	55,208
부산	6,977	6,977	13,954	2,584	877	17,415
대구	6,083	6,083	12,166	2,272	831	15,269
인천	9,324	9,324	18,648	3,536	1,227	23,411
광주	4,668	4,668	9,336	1,772	664	11,772
대전	4,542	4,542	9,084	1,736	931	11,751
울산	2,904	2,904	5,808	1,076	349	7,233
세종	2,218	2,218	4,436	850	274	5,560
경기	46,301	46,301	92,602	17,715	7,047	117,364
강원	4,393	4,393	8,786	1,640	510	10,936
충북	5,175	5,175	10,350	1,969	693	13,012
충남	7,115	7,115	14,230	2,684	788	17,702
전북	4,655	4,655	9,310	1,773	780	11,863
전남	4,682	4,682	9,364	1,752	645	11,761
경북	6,316	6,316	12,632	2,351	814	15,797
경남	8,145	8,145	16,290	3,030	1,298	20,618
제주	2,438	2,438	4,876	931	229	6,036
전체	147,802	147,802	295,604	55,435	20,737	372,707

6. 통합기관 신임 영유아교사 비율

- 각연도 유치원교사수 및 보육교사수 대비 국공립유치원 신규교사 선발인원, 사립유치원 신임교사 및 신임보육교사수의 비율

구분	2020	2021	2022
서울	18.74	18.22	18.01
부산	19.14	18.46	18.04
대구	17.74	19.08	18.41
인천	18.53	18.32	18.61
광주	18.41	17.92	17.03
대전	19.64	18.65	17.90
울산	19.01	18.15	18.35
세종	18.36	17.97	16.04
경기	19.03	18.58	18.80
강원	18.38	18.05	18.70
충북	18.19	17.01	16.63
충남	18.53	17.34	17.22
전북	18.11	16.71	14.97
전남	17.31	16.72	14.63
경북	18.41	17.71	17.73
경남	19.25	18.43	17.61
제주	16.66	16.32	15.43
전체	18.68	18.15	17.87

주1. 전체 신임교사 비율은 전국 교사수 대비 신임교사 비율에 해당함.

주2. 사립유치원 신임교사 비율의 경우 2023년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7. 통합기관 신임 영유아교사 수요 (2031)

- 통합기관의 담임교사수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학급당 교사수(담임교사수+ 연장교사수)를 기준으로 2022년 신임교사 비율을 이용한 추정치를 각각 산출하여 2종의 신임 영유아교사 수요 규모를 산출

구분	통합기관 담임교사수 기준		통합기관 담임교사 및 연장교사수 기준	
	교사 수요 예측치 1	신임교사 수요 규모 1	교사 수요 예측치 2	신임교사 수요 규모 2
서울	21,866	3,937	43,732	7,874
부산	6,977	1,259	13,954	2,517
대구	6,083	1,120	12,166	2,240
인천	9,324	1,736	18,648	3,471
광주	4,668	795	9,336	1,590
대전	4,542	813	9,084	1,626
울산	2,904	533	5,808	1,066
세종	2,218	356	4,436	712
경기	46,301	8,703	92,602	17,405
강원	4,393	822	8,786	1,643
충북	5,175	861	10,350	1,721
충남	7,115	1,225	14,230	2,450
전북	4,655	697	9,310	1,394
전남	4,682	685	9,364	1,369
경북	6,316	1,120	12,632	2,240
경남	8,145	1,435	16,290	2,859
제주	2,438	376	4,876	762
전체	147,802	26,470	295,604	52,941

영유아교사 공급 규모 (2031)

유치원교사 배출 규모 자료

1.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정원 (2026)

2. 4년제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유아교육과 정원 (2026)

3. 4년제 일반대학 교직과정 정원 (2026)

4.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유치원교사
배출 규모 (2022)

- 학과 정원은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내부자료를, 교육대학원 배출 규모는 교육부 내부자료를 이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정원은 규모 산출에서 제외

보육교사 배출 규모 자료

1. 전문대학 보육·아동 관련학과 정원
(2025)

2. 4년제 대학 보육·아동 관련학과 정원
(2025)

- 보육교사 배출학과는 1997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시 정한 관련학과(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초등교육학과, 가정학과 등 13개 학과) 대신 2004년 전문개정으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도입 당시 교사수 추계를 위해 정의한 핵심학과 개념을 적용하여 학과명에 아동 또는 보육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학과를 선정: 핵심학과 중 유아교육과는 제외
- 학과 정원은 대학교육협의회 자료 이용: 2026년 정원까지 활용 가능하나, 정책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에 해당하여 2025년 자료를 활용
- 원격대학 정원은 규모산출에서 제외

영유아교사 배출 규모 (2031)

- 2026년 유아교육과 정원, 2022년 교육대학원 배출규모 및 2025년 보육·아동관련학과 정원을 합산하여 산출

구분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4년제 유아교육과	4년제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전문대학 보육·아동관련학과	4년제 일반대학 보육·아동관련학과	계
서울	389	218	22	177	214	299	1,319
부산	186	172	7	5	65	142	577
대구	476	20	2	12	60	36	605
인천	140	20	0	9	0	22	191
광주	71	228	0	3	67	0	369
대전	145	138	0	0	0	40	323
울산	85	0	0	0	0	0	85
세종	0	0	0	0	0	0	0
경기	977	283	8	50	252	184	1,764
강원	85	212	0	0	0	0	297
충북	101	138	2	2	0	52	295
충남	115	242	16	11	0	130	514
전북	175	71	4	22	50	92	414
전남	86	74	0	0	30	20	210
경북	222	219	7	11	0	24	483
경남	75	162	0	14	62	37	350
제주	110	0	0	0	0	0	110
전체	3,437	2,197	68	316	800	1,078	7,896

영유아교사 수급 예측에 따른 관리방안

- 신임 영유아교사 수요 규모 대비 신임 영유아교사 공급 규모를 산출하여, 부족한 신임 영유아교사의 추가 수요를 산출함.
- 그 결과 전국적으로 적게는 1.8만명, 많게는 4.5만명 가량 영유아교사의 추가 배출이 요구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지역별로는 경기의 교사 부족이 두드러지며, 서울과 인천의 부족분도 일정 수준 이상임. 도 지역 중에서는 경남과 충남, 경북의 부족분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
- 신임교사 공급 규모를 기준으로 추가 수요가 2배 이상 요구되는 세종, 인천, 울산, 경기, 경남을 들 수 있음. 이 중 세종은 지역에 소재한 양성기관이 부재하여, 인근 지역의 교사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영유아교사 수급 평가(2031)

구분	신임교사 수요		신임교사 공급	신임교사 추가 수요	
	추정치1	추정치2		추정치1 기준	추정치2 기준
서울	3,937	7,874	1,319	2,618	6,555
부산	1,259	2,517	577	682	1,940
대구	1,120	2,240	605	515	1,635
인천	1,736	3,471	191	1,545	3,280
광주	795	1,590	369	426	1,221
대전	813	1,626	323	490	1,303
울산	533	1,066	85	448	981
세종	356	712	0	356	712
경기	8,703	17,405	1,754	6,949	15,651
강원	822	1,643	297	525	1,346
충북	861	1,721	295	566	1,426
충남	1,225	2,450	514	711	1,936
전북	697	1,394	414	283	980
전남	685	1,369	210	475	1,159
경북	1,120	2,240	483	637	1,757
경남	1,435	2,869	350	1,085	2,519
제주	376	752	110	266	642
전체	26,470	52,941	7,896	18,574	45,045

영유아교사 양성에 따른 관리 방안

- 1 **현재의 유치원 및 보육교사 양성학과의 배출 규모 상향 조정**
 - 유아교육과 정원 확대
 -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자 규모 확대
 - 보육·아동관련학과의 양성학과 전환 독려
 - 미전환 보육·아동관련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비율 상향 조정
- 2 **기존 유치원 및 보육교사의 영유아교사 자격 전환을 적극 추진**
- 3 **지역별로 다른 교사 배치 기준 적용 가능성 검토**
- 4 **통합기관 영유아교사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필요성**

주제 3

영유아 교원 양성기관 평가제도 개선안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24. 10. 17. 10:00

영·유아 교사 양성기관: 교원양성기관평가 중심

강은진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목 차

01

교육부의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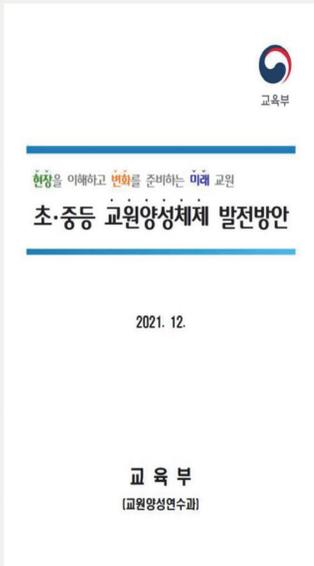
02

영유아교사 양성에 대한 방향

03

영유아교사 양성학과 사전승인 방안

01 교육부의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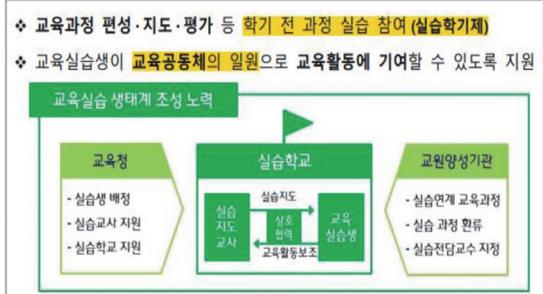
□ 추진 방향

학교·교실 현장에 대한 이해 제고	전문성 확장, 지속적 발전하는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실습 강화 ▶ 현장 참여 교육과정 운영 ▶ 학습자 이해, 적·인성 검증 강화 ▶ 교육청 연계·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多)교과 역량 함양 ▶ 석사수준 재교육 (1급 정교사 연수 연계) ▶ 교대·종합대학 연계·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다양성 확대 - 예비교원 교육과정 선택권 강화
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예비교원·대학 등 현장 수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수급계획 고려, 정원 조정·관리 ▶ 중등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범대 : 공통과목 등 중심 - 교직과정 : 전문교과, 신규분야, 비교과 등 - 교육대학원 : 재교육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교원 기회비용 고려 ▶ 교원양성기관 목적형 양성 중심 ▶ 대학 개편의 비용/효과 고려

II-1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 개선

< 교원양성 교육과정 지향점 >

- ❖ **미래 소양 함양**
 - ▶ 원격교육, AI·빅데이터 등 정보기술 활용 역량
 - ▶ 기후·환경, 포용사회, 인권 등 사회 변화에 대한 감수성
- ❖ **현장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 ▶ 현장 교사 강의 참여 및 교수자 현장 이해 제고
 - ▶ 학습자 이해 제고 및 초·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 ❖ **다층적 적·인성 검증 체계 구축**



- 미래소양 함양: 정보기술 활용 역량 (원격교육, AI 빅데이터), 사회변화에 대한 감수성 (기후환경, 포용사회, 인권 등)
- 교육실습 내실화
- 실습학기제 도입
- 1급 정교사 연수 연계 다교과 역량 함양

< 다교과 역량 구성 요소 >

- ❖ 학부 과정 + 직무 연수(학점 인정), + 1정 연수 (교육대학원) 연계하여 '융합전공' 이수
- ▶ (중등교원) 현행 '부전공' 제도를 '다교과전공'으로 명칭 변경·개선 (교과별 특성 고려)
- ▶ (초등교원) 현행 학부 '심화과정'을 '핵심전공'으로 신설·개편 (현장 수요 대응)

02 영유아교사 양성에 대한 방향

②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p>✓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양성체제는 어떻게 변경되나요?</p>	<p>✓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 제고를 위해 자격·양성체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합니다.</p>	
---	---------------------------------------	---	---

〈통합교원 자격·양성 개편 주요 방향〉

통합자격	· 1 ^회 영유아정교사(0~5세) · 2 ^회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
승급체계	· '2급 → 1급 → 원감 → 원장'으로 개편
통합교사 양성	· 학사학위(전공심화 포함) 과정, 대면 중심의 학과 또는 전공제
현직교사 통합자격 취득	· 일학습병행이 가능하도록 통합자격 취득과정 운영

※ 통합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

유보통합 실행계획 (2024. 6)

- (통합자격)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검토 후 결정
 - ①현장교사, 학부모, 학계·단체, 양성대학의 의견 및 ②0~5세 영유아 교육과정, ③통합기관 기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 검토 후 결정

현행		개편(안)	
보육교사	0~5세 보육	1안	0~5세 담당 영유아 정교사
유치원교사	3~5세 교육	2안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

- (승급체계) 영유아 정교사 승급 경로는 '2급 → 1급 → 원감 → 원장'으로 개편

(계획) 2027년 신규교사 입학, 2031년 첫 신규교사 배출

- (통합교원 양성)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학사 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 전공제(가칭 영유아교육전공)로 신규교사 양성
 - ※ 자유전공제, 마이크로디그리, 실습학기제 도입 등을 통해 영유아 교사 양성과정 혁신

현행		→	개편(안)	
보육교사	전문대학, 4년제,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보육교사교육원 등 * 보육교사 3급 양성은 폐지 예정		영유아 교원	(학위) 학사학위 이상 ^① (양성방식)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학교개편) 가칭영유아교육과로 개편 ^② ※ 비대면 학습제 도입은 승급만으로 운영 검토
유치원교사	전문대학, 4년제,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 ① 전문대학에서도 영유아교사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50조의3) 개정
- ② 유아교육과와 아동보육 관련학과는 가칭영유아교육과로 개편을 원칙, 비사범 학과는 명칭 변경 없이 '영유아교육 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양성정원은 별도 심사

신규 영유아교사 양성에 대한 기대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 제고

차별없는

질 높은

상향 평준화

통합법 적용에 따라,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으로 변경

- 사학연금 가입 가능하나, 실업급여 미지급 (현행 고용보험에서 지급)

교사 자격 체제

[과제 1] 영유아교사 자격취득 방식

-대면 중심 학과제 기반의 정규대학

[과제 2] 영유아교사 자격종별 체계
일원화

-초중등교사와 연계된 동일한 자격종
별 체계로 일원화

-다만 학력, 직무고려한 자격종별 구
분

교사 양성 체제

[과제 1] 영유아교사 양성 최소학력

-4년제 학사학위

[과제 2] 영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 일
원화

-표준양성교육과정 개발

-전공+교직교과목 구성: 0-2세 영아
발달과 교수방법 이해, 0-2세와 3-5
세 실습

-현재 교직과목(이론, 소양, 실습)에 유
아교육특성 반영

고영미, 서윤희, 임수진, 박수경(2022). 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유보통합 정책 방향 및 단계별 방안. 유아교육연구, 42(6), 541-570 <http://dx.doi.org/10.18023/kjece.2022.42.6.023>

0~5세 유아학교 교원자격기준 안

• 교원의 구성:

-담임교사(학사학위자)

-부담임 또는 방과후교사
(전문대 학력 보육교사)

(조부경, 2013: 48)

<표 17> 유아교육보육통합 후 (가칭) 유아(학교)교사 자격기준(안)

등급	자격기준	역할과 직무	비고
(가칭) 유아교사 1급	1. 유아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아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담임교사의 역할과 직무 수행	
(가칭) 유아교사 2급	1.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자 2.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및 학사학위 취득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방과후 교사, 부담임교사의 역할과 직무 수행	- 학사학위 취득 후 유아교사 2급 자격 취득. - 경력만 있을 경우 호봉은 올라가지만 유아교사 자격취득 불가 - 학사학위 취득 후 유아교사 2급 자격 취득. - 경력만 있을 경우 보육교사 1급
(가칭) 보육교사 2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유보통합 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을 현행 유치원 교사 자격 기준으로 통일하는 최소학력 기준 마련.
- 전문대학 이상의 영유아교육 관련 학과로 통합을 추진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육관련 학과의 학과제를 신속히 취득.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학과에서만 영유아 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
- 단계별 실습과목을 확대하고, 실습내용을 확장
- 필수 과목과 선택교과목의 체계적 연계 필요

송경희, 김태연(2023). 유보통합에 대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자격의 현황 및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139, pp.25-45 <https://doi.org/10.37918/kce.2023.3.139.25>

계열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자격 일원화

1. 유아교사 자격의 계열성

유치원 정교사 자격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서 제시

〈표 1〉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교사의 자격종별과 최소 이수기준

자격종별	전공 세부 이수기준	교직 세부 이수기준
유치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초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중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80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2급)	50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준교사	50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실기교사	50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출처: 교육부(2021a)

2. 보육교사 자격의 특수성

보건복지부 산하 준공영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이 자격관리

영유아교사 자격은 0-5세로 일원화
전공이수과목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와 기준 참조

계열성: 최소학력 초중등에 맞게 4년제 학과 방향
특수성: 표시과목에 맞게 학과운영지침 제시 가능. 그러나 교원양성기관평가 받지 않는다면 교육부 관리에서 벗어날 것

김대욱 (2023). 유보통합을 위한 0-5세 영유아교사 자격과 영유아교육과 중심 양성체제, 그리고 기존 교원의 영유아교사 자격 부여 방안. 열린유아교육연구, 28(3), 1-27

영유아교사 양성학과 사전승인 방안

- 목적: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 질 관리와 자율적 발전지원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영역 종합적 진단
- (1주기) 1998~2002, (2주기) 2003~2009, (3주기) 2010~2014, (4주기) 2015~2017, (5주기) 2018~2021
- 2024년 현재는 6주기 평가 시작
- 5주기는 종합적 평가를 통해 체계적 관리를 정책의 방향으로 삼았다면, 정책명 변경을 통해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역량진단’으로 수정하고,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을 고려한 양성규모 적정화를 도모
-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5주기 평가지표의 틀은 유지하되 「초·중 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지표에 진단요소 추가하도록 수정

5주기 평가 결과

구분	정원감축 규모				
	소계	C(30% 감축)	D(50% 감축)	E(기관 폐지)	
사범대학/교육과	138명	124명 (12개 기관)	14명 (1개 기관)	-	
교직과정	1,831명	899명 (64개 기관)	787명 (31개 기관)	145명 (3개 기관)	
교육대학원(양성)	1,290명	751명 (33개 기관)	439명 (12개 기관)	100명 (1개 기관)	
전문대학 등	유치원교사	1,164명	1,070명 (19개 기관)	94명 (4개 기관)	-
	보건교사	30명	25명 (8개 기관)	5명 (2개 기관)	-
총계	4,453명	2,869명	1,339명	245명	

교원양성기관평가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 교원양성기관평가 지표에 대한 의견: 초중등과 통일 vs. 영유아교육학과 특성 반영,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의 지표 차별화?
- 일반대 교직과정 아동관련학과의 승인인원 규모: 현 10% 유지 vs. 보육 교사 배출 수만큼 보존 학과정원의 50%
-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4년제 학제변경으로 인한 정원감축 여부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교원양성기관: 양성기관평가 시 타 대학과의 지표 통일 vs. 초중등 교사를 준용해 양성기관평가 대상에서 제외
- 5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던 영유아교원관련 학과(전공)에 대한 포함 문제
- 신규 영유아교원 승인 학과를 위한 사전 인정 및 컨설팅 지원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안

- 첫째,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6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 결과 역량진단 결과의 확정 일정보다 신규 영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입학 정원 확정 일정이 앞서야 하는 상황
- 둘째, 영유아교사의 수급을 고려할 때, 6주기 평가 대상과 신규 영유아교육(학)과 진입학과의 정원인정을 현 10% 비율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 셋째, 6주기 평가지표 적용 시 영유아교육(학)과 신규 교육과정 및 교직 이론의 변경으로 인해 평가 불이익 우려

[참조] 영유아교원을 위한 교직이론 과목 제안 (교원대 유아교육연구소, 2023)

구분	하위범주	과목명
영유아교사 교육관 및 전문성	영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전문성	영유아교사의 교직 윤리 영유아교사의 리더십
	영유아교사의 복지와 권익	영유아교사의 웰빙과 역량 강화 영유아교사를 위한 교육법과 정책
교육공동체의 소통 및 협력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협력	유·초연계 교육과정의 이해와 전이 지원 가정과 기관,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영유아교사의 교육 현장성 제고	영유아를 위한 정서적 지원의 실제 영유아 교실 및 기관 운영과 행정의 실제
영유아교육의 사회적 동향: 미래 사회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미래사회와 글로벌교육의 동향	디지털 미디어 리더러시 교육 지속가능성과 영유아 환경교육 세계 영유아교육의 동향 이해
	문화적 다양성 이해 제고	영유아교육 내 다양성: 다문화 교육의 이해와 적용
교육 연구와 현장 연계	교육연구기반 현장실천의 이해	영유아교육과 실행연구 영유아교육 현장과 현장: 이해와 실제 영유아교육평가 및 데이터 기반 분석
	표용적 교육과 영유아의 이해	영유아 다양성의 이해와 포용적 교육 영유아 뇌 발달의 이해
영유아교육의 본질 및 철학	영유아교육의 본질적 가치탐색	민주시민으로서의 유아와 교사 교육과 돌봄, 놀이와 배움의 의미 탐색

[유형 1]

5주기 평가 실시 학과: 사범대 유아교육학과, 일반대 유아교육학과 [교육과정 변경]

- 일반대 교직과정 운영 아동관련학과 [양성교원 비율 상향]
-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3→4년제 전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수업운영의 적절성 충족 도전]



[유형 1]

6주기 평가 실시 후, 결과 등급(A~E)은 부여받으나, C~E 등급에 대한 감원 조치 대상 제외(교육부 담당자간 협의), 유형 2에 한해 사전승인 절차 진행

[유형 2]

신규 진입 신청 학과: 현재 보육교사 양성과정 운영 아동관련학과 중 학과통합 및 전환을 통해 영유아교사 양성을 희망하는 학과



[유형 2] 유형 1과 유형 2 모두, 영유아교육학과(유아교육과 포함) 전체 통합의 과정 중이므로, 6주기 평가대상에서 일괄 제외. 단, 6주기 평가지표를 활용한 사전승인 기준 제시

영유아교육학과 사전승인지표

- 모든 신청 대상에 동일기준 지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교원양성기관평가의 목적과 영유아교사양성의 취지는 교원의 질 제고이므로, 이에 따라 적용
- 6주기 교원양성 평가지표를 사전승인 지표로 활용함은, 현재 6주기 평가지표 기준 평가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관련 대학들의 혼선은 막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대학에는 영유아교육(학)과에서 추구하는 교원양성의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

지정 토론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에 대한 토론문

박윤현 |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 연구는 유보통합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는 연구로, 영유아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영유아 권리 보호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넘어, 영유아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는 교사 자격과 교육 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배경이 다른 가정의 영유아에게도 공평한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며, 영유아교원 전문성이 강화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중복된 행정적·재정적 운영이 통합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 연구는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첫걸음이자, 유보통합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에 대한 저의 소견을 덧붙이자면,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영유아를 위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교원 양성 과정은 유아교사와 보육교사의 구분을 넘어, 대학에서 예비 영유아교사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배출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영유아교사 양성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토대로 영유아교원을 양성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학과 영유아교육과를 중심으로 질 높은 교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보통합에 부응하는 변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대학과 영유아교육과에게는 영유아교원교육센터와 같은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이 주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회와 지원은 단순히 기존의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기준을 통해 영유아교원 양성의 질을 평가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교육적 질과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영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영유아교육과로의 전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를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전환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의 부족입니다. 따라서, 교육부 차원에서 학과 전환을 고려하는 대학들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성을 빠르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해당 대학이 전환 후 안정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전환 지침과 구체적인 정원 확보 계획 등을 공문을 통해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무전공 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대학들이 영유아교육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원 문제를 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두지 말고,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영유아교육과로 전환하는 대학의 학생 및 전임교원 충원율과 교육의 질을 고려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예외 적용,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 과정 등을 통한 정원 배정을 증원함으로써, 질 높은 영유아교원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들이 보다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부가 대학의 영유아교육과 전환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면,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들이 안정적으로 영유아교원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영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영유아교원 양성 학과 개편에 대한 정책은 2027년부터 예비 영유아교원에게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영유아교육과로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모든 예비 영유아교원이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구체적인 정책 방침이 마련되어 영유아교원 양성 학과 개편 정책과 같은 교육과정을 2025년과 2026년에도 경험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은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전환 과정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예비 영유아교원 역시 개편된 교육 체계에 맞춰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현재 영유아교원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영유아교원의 권리, 특히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예비 영유아교원들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책은 신속하게 실행되어 각각의 대학이 예비 영유아교원을 위해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영유아교육과의 전환과 영유아교원 양성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정책 방침 마련 제공은 대학들이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춰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재정비하는 데 필수적이며, 예비 영유아교원들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범대학이 없는 대학들이 영유아교육과로의 전환과 제도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과 함께 명확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유아교원 양성 역량을 보유한 학과와 대학이 이러한 전환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에 사범대학에 적용되던 규정 및 법령 또한 함께 개정되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사범계

열 대학 영유아교육과에서도 특별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법적 자격을 조속히 마련하여 다양한 대학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영유아교원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영유아교육과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견이 반영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영유아교원 양성 학과 개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 영유아교원들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영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심도 있는 정책 연구를 통해 귀중한 결과를 제공해 주신 김대욱 교수님과 연구팀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구 과정에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연구가 더 나은 정책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병호 |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

유보통합을 추진되는 현 시점은 4차 산업혁명, 기후환경변화,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 다양한 가능성과 문제점이 교차하는 특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에 기초한 새로운 유아교육·보육의 패러다임의 확립이 요구된다.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영유아교원의 양성과정과 양성학과 개편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늘 발표된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선 방안 연구팀의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방안이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하다고 보며, 발표에 대한 몇가지 논의를 통하여 향후 개선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

1) 미래 변화에 따른 개편 방안

- 발표에서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이 향후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예측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였음.
-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영유아교사의 향후 추계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교원 양성 방안의 보완책에 대한 설계와 고려가 필요함.
- 발표에서 현재 대학교육의 주요 개혁방안인 자유전공제에 대한 다양한 안들이 폭넓게 제시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자유전공제가 추구하는 간학문적 인재의 양성과 영유아교원 양성학과에서 목표로 삼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가 상충되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 개편의 방향성에 대한 공유

- 싱가포르의 유보통합 과정에서, 0-3세를 위한 The Early Years Development Framework (2013) 와 4-6세 대상의 The Nurturing Early Learners Framework(2013)을 구성하고 연계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이를 통하여 이해당사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실무차원의 통합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Bull, & Bautista, 2018).

-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에 있어 현재 한국사회에서 공유하는 ‘통합된 영유아보육과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를 개편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개편을 통한 양성과정의 일원화 및 명료화

- 일본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며 인정어린이원(認定こども園)이 도입되어 유치원, 보육소를 포함하여 3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이규립, 2017). 인정어린이원은 기본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과 보육소의 보육사 자격 등 2가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사나 보육사 자격을 가진 교사가 다른 한가지의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어 실행하고 있음. 이는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에 대하여 교사 부족 현상을 규제완화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으나, 교사의 질에 대한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음(김희정, 2019).
-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유보통합에 있어 교사양성과정을 명료하게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체계의 도입이 교사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를 반영하여 국내의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또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라는 원칙에 충실하고 명료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음.

4) 정부 지원의 필요성

-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대학 교육과정 개선을 진행하는 대학과 유아교육·보육 관련 학과에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전세계적으로 교사라는 직종의 평가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남(Dolton et al., 2018).
- 싱가포르의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gency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96,000,000 이상의 예산을 예비교사 양성 프로그램 및 교사 재교육에 투입함(www.msf.gov.sg/media-room).
- 영유아교원의 질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수요를 충족하는데 있어 대학 및 관련 학과에 대한 제도적·인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영유아교원의 직종에 대한 정체성과 비전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참고문헌

- 김희정. (2019). 일본 유아교사의 자격제도와 처우 탐색. *광신논단*, 29(0), 275-298.
- 이규림. (2017). 일본 신(新)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과 시사점 고찰. *육아정책연구*, 11(2), 149-167.
- Bull, R., & Bautista, A. (2018). A careful balancing act: evolving and harmonizing a hybrid system of ECEC in Singapore. In S. L. Kagan (Ed.), *The early advantage: early childhood systems that lead by example: a comparative focus on internatio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pp. 155-181). (The early advantage; No. 1). Teachers College Press.
- Dolton, P., Marcenaro, O., De Vries, R., & She, P.-W. (2018). Global Teacher Status Index 2018. Varkey Foundation. <https://www.varkeyfoundation.org/media/4867/gts-index-13-11-2018.pdf>.
-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2023). Launch of updated early childhoo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roadmap to strengthen educator competencies. Retrieved October 13, 2024 from <https://www.msf.gov.sg/media-room/article/launch-of-updated-early-childhood-continuing-professional-development-roadmap-to-strengthen-educator-competencies>.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현주 | 대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에서는 유보통합의 지향점을 명료화하여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유보통합을 왜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교육과 돌봄은 전문적인 교사에 의해 완성될 수 있는 것이기에 어쩌면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가 전문적인 영유아 교사자격체계의 마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유아교원 양성학과의 개편은 학과의 명칭, 수업연한 등의 통합이나 확대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위상에 맞는 질적인 측면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토의 발제 원고에 제시된 학과 명칭, 수업연한 확대, 무전공(자유전공제)도입, 학과개편안 및 운영방식(영유아교육과 총정원제 제외, 대규모 영유아교육학과 운영 등) 등은 그 방향성이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확대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듭니다.
- 옛날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습니다. 교육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기 때문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삶의 기초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의 교육을 담당할 영유아교원을 양성하는 학과의 개편이라면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편의적인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전문적이고 우수한 영유아교원 양성을 목표로 기본부터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보통합의 주관 부처인 교육부는 그간 교원양성기관의 질관리를 위해 정원 인가, 교원자격검정,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등을 철저하게 실시해왔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체계가 시작점이 되어 이를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교원’의 위상과 지위에 걸맞게 타급학교(초·중등) 교원양성체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와 같은 기본 방향성을 바탕으로 발제 원고의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 ‘영유아교육(학)과’라는 통합학과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학과의 목적 및 기능과 그에 따른 전환 대상 선정의 기준을 정교화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영유아교육(학)과’라는 교원양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학과의 명칭에 걸맞게 전문적인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과 기능이 되어야합니다. 유보통합을 기회로 누구나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기본적인 System(교원양성체계)을 갖춘 대상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7주기 교원양성역량진단부터 적정 규모 계속 관리’, ‘가능한 최대한 영유아교육(학)과로 많이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독려’, ‘해당학과 교원의 세부전공이 영유아교육 절반이상’ 등은 전환장벽이 매우 낮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통합학과로 전환하기 전에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준하는 기준으로 진단이 이루어지고, 최소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합학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 현재 제시하고 있는 ‘전공 주임교수 최소 1명 확보 필수’, ‘아동관련학과에 영유아교육전공 신설’, ‘영유아교육(학)과에서 교육대학원 전공 주임 두고 운영’ 등의 개략적 차원이 아닌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로 사용되는 ‘교원확보율(전공전임, 교과교육과목 교수자 전공일치도 등)’, ‘교육과정(교과/비교과)’, ‘적·인성’, ‘교육환경’ 등의 지표에 준하여 세부적 기준이 사전에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체계를 갖춘 대상이 통합학과 전환 신청(인원포함)을 받고 전환 전 진단을 통해 인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환 준비도, 교원양성시스템의 체계성 정도에 따라 인가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수업연한을 4년 이상으로 통일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만, 수업연한의 확대와 더불어 영유아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0-5세 ‘영유아교원’ 양성학과로 통합된다면 연령별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교원의 역량강화가 더욱 필요합니다. 발달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개개인의 차이가 큰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상 담당 영유아의 연령범위가 0-5세로 늘어나는 것은 교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 범위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됩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제시 되지 않는다면 교원역량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수업운영의 방식에 있어서도 전면 대면교육 및 현장 연계교육의 강화로 영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해야할 것입니다.
- 수업연한을 4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교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대학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추진 동력이 반감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지원책(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원금 등) 마련으로 우수한 기관이 교원양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없는 무전공(자유전공제)도입은 영유아교원양성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영유아교사 뿐만 아니라 교직은 교사로서의 남다른 소명감과 책임감이 빛을 발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영유아기는 교사의 지식 및 기술보다 태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영유아 교사의 인성이 가장 중요한 자질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유아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에 대한 목적의식과 소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고 이후 교사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키워 교직에 종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전공(자유전공제)의 경우 이러한 목적의식이나 소명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소명감을 가지고 입학하였더라도 수학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인원들이 있음을 볼 때 무전공(자유전공제)입학을 통한 영유아교원양성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무전공(자유전공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재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유아교원 수급부족의 문제 해결이 그 이유라면 도입을 반대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교원의 배출로 다원화된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교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는 보완책(별도 교과, 추가 현장연계활동 이수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무전공(자유전공제) 도입이 현대 사회의 변화 및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면, '입학 시 무전공 선발은 제외하고 2학년 추가 배치 가능'으로 실행하되 무전공에서 보완되어야 할 요소들을 반드시 보충(선수과목 이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학과 개편 및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교원양성체제를 갖춘 기관을 중심으로 '교원'의 지위와 위상에 걸맞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기준과 운영 방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1개 대학 2개 이상 학과의 영유아교육과 통합, 25명 분반 기준 마련, 충분한 수의 교수 충원 등은 영유아교원양성의 질적인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특별교원양성과정(현직교사자격전환과정), 무전공(자유전공제) 도입, 영유아교육전공 교원자격 수여 비율 증가,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의 정원을 양성과정 정원으로 이동시키는 방안 등은 세밀한 검토와 보완, 신중한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 특별교원양성과정(현직교사자격전환과정),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의 정원을 양성과정 정원으로 이동시키는 방안 등 유보통합을 위한 교원양성체제는 교육법의 교원양성 기준에 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기관, 교육내용, 방법을 정교화 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의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은 어떤 분야를 시도할 때 반드시 내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면서 결코 건너뛸 수 없는 절차로 기본을 갖추어야 그 분야에 들어설 수 있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기본 없

이 시작할 수는 있지만 오래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 영유아교원양성의 기본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 영유아교육에서 영유아와 부모, 영유아교사와 우리 사회가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며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사양성 체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교사 양성 정원 추계 및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편

박유정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영유아교육·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의 질 높은 교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영유아교사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 계획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제 2 연구는 2027년에 영유아교사 양성학과에 입학하는 인원이 졸업하여 4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영유아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2031년의 영유아 수를 추산하고, 여기에 영유아 연령별 기관 취원률과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적용하여, 영유아교사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였다(담임교사 수 또는 담임교사와 연장교사의 합). 그리고 이 수에 2022년도 신입 교사 비율을 적용하여 신입 영유아교사 수요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현 유치원교사 자격 취득 기관(한국방송통신대학 제외)의 영유아교사 배출 규모와 비교하여, 부족한 영유아교사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1. 영유아교사 대 아동비에 따른 수요의 유동성

첫째, 연령별 필요 영유아교사수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0세 1:2, 1세 1:5, 2세 1:7, 3세 1:13, 4세 1:15, 5세 1:18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1세와 2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현 법정 교사 대 아동 비율(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명, 4세 이상 1:20)과 동일하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1, 2세 아동 대 교사 비율도 개선될 여지가 있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 경우 필요한 영유아교사 수는 발표자료에서 제시된 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교사의 교육업무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진이 제시한 두 가지 수요 안 중에서 담임교사와 연장교사를 합한 안(담임교사의 2배)가 교사 수요 규모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양질의 영유아교사 공급을 위한 교원 확보

둘째, 부족한 영유아교사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현 유치원 및 보육교사 양성학과와 영유아교사 배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 중 첫 번째 구체적 방안으로 현 유아교육과의 정원 확대가 제안되었다. 이는 양질의 교사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며, 다만 이와 같은 정원 확대 시 대학교원의 추가 확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보통합 및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의 핵심은 영유아교육의 질과 교사의 질에 대한 기준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교사 양성 교육의 질 또한 높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 교원들의 소진 없이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질 좋은 양성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공교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양성학과 전환 독려 및 미전환 학과의 경우 교직 이수자 비율 개별 적용

셋째, 연구진이 제시한 보육·아동관련학과의 양성학과 전환 독려 역시 질 높은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특히 학생 대부분이 영유아교사 되기를 희망하는 학과의 경우에는, 학과 미전환 상태에서 교직 이수자 비율을 정원의 30%, 50%로 증가시킬 경우, 학생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 동일 학과 학생들의 절반만 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되면 학생들 간의 경쟁이 발생하고 일부 학생들에게는 패배감을 주어 배움공동체로서의 학과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교직 이수자 비율을 아무리 상향 조정해도 100%가 아닌 한 누군가에게는 패배감을 안겨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사로서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과의 경우는 영유아교육(학)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영유아교사 외에 다른 진로와 전문성을 추구(예: 영유아와 관련되나 상담, 정책, 연구 진로를 추구)하는 학생들이 상당 비율 있어 영유아교사 양성학과로의 전환이 어려운 학과들의 경우에, 기존의 졸업생 교사 자격 취득 비율을 반영하여 양성 기관별로 교직 이수자 비율을 정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교직과정 이수자 비율을 일괄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게 되면, 학생 지원 미달이 발생하는 경우 교원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4. 지역별 교사 배치 기준

넷째, 지역별로 다른 교사 배치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발표자료에서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교사 부족이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공급이 수요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서 교사 정원을 더 많이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경기에서 배출된 교사가 서울 등 타지역으로 이동하면 경기도의 교사 공급 부족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의 교사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교사 근무 환경 개선, 인센티브 등의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역 대학에 정원을 늘릴 경우 대학이 그 정원을 지원자로 채울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가 존재한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 신입생 충원률이 낮다면 그곳에 교사 정원을 제공했다가 미달이 될 경우 교사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다른 교사 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보다 다각도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교사양성기관: 교원양성기관평가중심에 대한 토론문

김정화 |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영유아교사 양성기관과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대한 발표문을 잘 보았습니다. 그동안 연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셨다는 점이 글에서 잘 드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기본 원칙과 자격 체계의 방향성, 그리고 교원양성평가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연구의 방대한 양에 비해 발표 내용이 PPT 형식으로 요약되다 보니, 일부 표현에서 내포된 깊은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의견이 혹여 본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었거나 논점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토론은 신규영유아교사 양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영유아교사 양성기관 평가의 새로운 방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규영유아교사 양성에 대한 기대 : 변화된 시점의 새로운 기준

신규 영유아교사 양성의 기본 원칙에서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 없는, 질 높은, 상향 평준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는 기본적으로 깊이 공감합니다. 이는 영유아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여 통합된 영유아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없는 이라는 표현은 이미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차별이 교사 간 차별인지, 학과 간 차별인지, 또는 고용조건의 차별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별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결 방안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육 교사의 법적 지위가 통합법 적용으로 마치 자동으로 교원으로 변경되는 것 같은 표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족해야 하는 자격조건에 대한 설명이 함께 있어야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문의 내용은 기존에 연구되었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영유아교사에 대한 자격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격체제 및 교사 양성체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영유아교사 자격

취득 방식은 대면 중심의 학과제 기반으로 가야 하며, 자격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미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보면 4년제, 영유아 학과, 대면 교육 등 중요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사와 연계된 동일한 자격종별 체계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제시하신 참고문헌 자료를 통해 이해한 바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는 초중등교사 교사와 동등한 학력과 자격을 가지도록 하고 유아를 보호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는 교사는 기준을 별도로 두어 학력이나 자격 기준을 보다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교육과 보호의 두 가지 역할을 구분하여 교사 자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영유아교사의 역할을 교육과 보호로 분리하는 것은 통합의 접근 방식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참고하고 있는 자료들은 유보통합의 결정 이전의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0-5세 교원 자격에 대한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그 당시에는 전문대 이상으로 자격 기준을 통일하자는 의견이 유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변화된 시점에서 통합시 유치원 교사 자격 기준으로 통일하자거나, 유아교사와 보육교사의 역할을 단순히 담임과 부담임으로 나누는 예시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유아교사의 통합된 역할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가칭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유아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을 존중하고 통합된 영유아교사의 담임 역할을 보조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열성과 특수성에 기반한 연구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유치원이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사와 유사한 전공 이수 시간을 가지고 있어 초중등교사의 자격과 높은 계열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교육은 민감한 발달단계의 이해와 다양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므로 오히려 다른 교육 단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격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한, 이수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직과목의 접근도 교육의 대상인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내용으로 개편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특수학교 교사의 이수 시간이 더 긴 것과 마찬가지로 영유아교사의 자격도 그 특수성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성은 그 교육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열성도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교사 자격이 초등·중등과 다르게 길어지거나 교직 내용이 달라지더라도, 이는 영유아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계열성의 확장으로 봐야 합니다.

- 영유아교사 양성기관 평가: 평가의 새로운 방향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기관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온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며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가준비 과정에서 대학과 학과는 평가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서류 준비와 보고서 작성, 현장실사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고, 교육과정과 실습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고 봅니다.

2021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성 체계를 혁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내용은 현장 이해 및 교육실습을 강화하고 현장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실습 학기제 도입이었습니다. 다만, 영유아들의 발달특성 상, 하루하루 발달의 속도가 다르고, 놀이와 상호작용 역시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매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실습이 오히려 영유아교사로서 역량을 키우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교원 평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교원의 수급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중등교원 양성 규모가 과도해 이를 조정할 사례가 있었고, 교원 자격취득 인원과 임용 인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발표 원고를 보더라도 유치원 교사의 정원은 5주 평가 결과 학생 수 급감에 따른 교원 수급을 고려하여 양성 규모를 적정화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원 수급의 적정화는 현재까지는 교원 양성 규모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그러나 영유아 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며, 영유아교사 수급에 대한 예측에 따라 인원의 증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사 수급의 양의 확대가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영유아교육학과의 평가는 초·중등 교원의 평가지표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영유아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중등교사와 기본 역량 면에서는 공통의 평가지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영유아교육의 목표, 내용과 방법, 영유아학교의 환경, 영유아교사의 역할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새롭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평가는 단순히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가지표 하나하나를 충족시켜 나가다 보면 우리의 목표가 자연스럽게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6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큰 변화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진행될 새로운 평에는 변화된 교육 환경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표자가 제안한 6주기 평가에서는 평가 결과 등급이 부여되겠지만, 상황에 맞춰 감원 또는 증원 등의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유아교육학과로 전환될 학과를 고려할 때 기존체제와 다르게

운영해 온 점을 고려하여 기존 평가체계가 그대로 적용되기 보다는 새로운 평가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과 전환을 위한 명확한 승인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충족된 경우에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영유아교육학과의 평가기준은 기본적으로 다른 교원양성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되겠지만, 영유아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기준과 평가지표가 새롭게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영유아학과가 역량있는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과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유아교사 양성기관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교육환경에 맞추어 교사들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교원 양성기관 평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편

전홍주 |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교원양성기관평가의 법적 근거(고등교육법)

※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추진배경 (6주기 일반대학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 설명회 자료집, 2023.6)

- 교직 전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
- 역량진단 결과는 학생 수 감소, 교원 수급계획, 임용시험 경쟁률 등을 고려한 양성 규모 적정화 및 교원양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 수준 진단을 통해 교직 희망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을 통한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 제고(유보 통합 실행계획, 2024.6)

-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 등에 따른 교원 관련 의무 및 권리 관련 각종 규정을 적용받게 됨을 의미함.
- 교원 의무 및 권리 적용 등의 교원의 지위는 교원양성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서의 양성을 전제로함.

□ 영유아교원 관련 학과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의 방향성

- 교원양성의 질적 수준 제고 목적
- 형평성, 일관성의 원칙 적용
-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 영유아교원 관련 학과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 (기존기관)

- 초·중등과 동일한 교원양성기관 평가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영유아교원 관련 학과의 교원양성기관으로써의 위상 확보. 단,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의 경우, 지표는 초·중등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현재 영유아교원 관련 학과의 전환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함.
- 일반대 교직과정 아동관련 학과의 승인인원 규모는 중등교사 교직과정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현행 10%를 유지함. 현 10%에서 확대할 경우 향후 공급이 수요를 앞서게 될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교원수급상 공급인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단기간에 양성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¹⁾에 따라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교원수급에 대응할 수 있음. 추후 정원조정은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실시함.
-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4년제 변경에 대한 정원: 편제정원(1+2+3+4학년 입학생 수)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이에 맞추어 입학정원(1학년)은 감축할 것을 제안함.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교원양성기관의 경우 초·중등 교원양성방식을 준용해 양성기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대면학과 중심 교사양성체제 확립. 방송통신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²⁾에 따른 원격대학임. 평생교육을 위한 원격대학으로서의 설립취지를 살려 향후 재교육 기관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5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를 받지 않은 영유아교원 관련 학과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신규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제안함.

□ 영유아교육학과 사전승인지표 (신규진입)

- 모든 신청 대상에 동일기준과 지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초·중등 교원 양성과정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함,
- 사전승인지표로 6주기 교원양성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교원양성 기관으로서의 공유된 비전에 따라 각 기관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교원양성의 질적수준 제고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1)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수요·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원 양성기관과 임시교원 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임시교원 양성기관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제4조 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자격증, 과목, 지역의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경우

2)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영유아 교원 양성학과 운영
개선 방향 모색**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